

V. 보고서

1. 서울교구 보고서³³⁴

1) 1901년 보고서

… 베르모렐Vermorel 신부는 149명의 영세자를 났습니다. 그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활 대축일에 66명이 영세를 받았는데 가장 많은 영세자가 나온 곳은 여산彌山, 은진恩津, 석성石城입니다. … (이하 생략)”

2) 1922년 보고서

2. 논산읍:논산은 루블레Rouvelet 신부에 의해 작년에 시작된 새 본당입니다. 그는 그의 전 본당 공주를 한국인 신부에게 넘겼습니다. 논산은 쌀의 집산지입니다. 루블레 신부는 신부택 대지를 매입하는데 성공, 학교를 세울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금년에 벌써 신부택과 임시성당을 지었습니다. 이 본당에는 16개 공소와 1,110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루블레 신부는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이곳 평야 지대의 교우들과 본인이 떠나온 산악 지방의 교우들을 비교할 때 대부분이 담배 농사를 지으며 완전히 교우촌에 모여 사는 산악 지방 교우들에게 열심과 그리스도교 정신, 순박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독부는 전매법을 공포함으로써 가장 건전한 국민에 속하는 이들이 거지 신세가 되었음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틀

림없이 감소하고, 지금까지 담배 농사 덕에 살 수 있었던 가족들이 새로운 생활 수단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논산으로 본인을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곳의 교우 수가 급격히 증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지요?” … (이하 생략)

3) 1925년 보고서

… 금년에 우리는 앙투안Antoine Gombert 및 줄리앙 공베르Julien Gombert 신부, 루블레Rouvelet 신부 등 동료 신부 세 명의 사제서품 은경축을 지냈습니다. 1900년에 6명이 함께 한국에 왔는데, 그중 2명, 즉 조아요Joyau 신부와 포리Faurie(방소동) 신부는 그간 사망했고, 또 한 사람 무세Mousset 신부는 현재 대구교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오래도록 우리들 가운데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하 생략)

4) 1928년 보고서

… 줄리앙 공베르J. Gombert 신부의 지도하에 있는 논산論山은 확장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질적 기반이 확실하고 또 희망이 가득한 분당입니다. 그러나 대전大田만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이 도시 중심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읍 근처에 사는 교우들은 모두 조선에서 천한 직업으로 통하는 웅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하 생략)

5) 1930년 보고서

… 줄리앙 공베르J. Gombert 신부도 그의 희망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예비자는 항상 여기 저기에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확실한 결과를 보려면 순회 전교회장들이 있

어야 합니다. 전교회장의 사업은 교구 본부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조직이 없는 한 우리는 언제나 별로 영세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 (이하 생략)

6) 1932년 보고서

… 충청남도에서 줄리앙 공베르 J. Gombert 신부는 그의 논산본당에서 성인과 어린이의 대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그의 교우들이 전교에 몰두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외교인들도 종교를 적대시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교육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공베르 신부를 위시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순회 전교회장을 구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예비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논산^{論山}에는 특히 젊은이들이 많고, 페랭 Perrin 신부 본당인 합덕^{合德}에서는 각 교우에게 예비자 한 사람씩을 맡겨 교리를 가르치게 하고, 가끔 선교사에게 와서 참고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 (이하 생략)

7) 1933년 보고서

현재 아주 성과가 좋은 조그마한 학교의 인가를 추진중인 줄리앙 공베르 J. Gombert 신부는 “새로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가 성공할 것인지? 이미 많은 노력과 돈을 들인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이 학교 사업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명의 조선 수녀들이 작년부터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있으나, 교육법이 엄해서 이 신부는 그 요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베르 신부는 대구교구가 추진 중인 방인 교구(全州教區)에서 제일 가까운 논산^{論山} 본당을 여전히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는 51명의 성인 영세자를 냈는데, 가까운 시일에 더 많은 영세자가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축한 지 불과 6년밖에 안 된 성당이 벌써 너무 좁아졌습니다. “신축할 당시는 항상 너무 크게 짓는 것이 아닌가

해서 겁을 낸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성당을 확장해야 하는 고민으로 인해 선교사의 마음을 슬프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이하 생략)

2. 대전교구 보고서(1948년 5월 8일 이후)³³⁵

1) 업무처리의 곤란함/인사이동 소식

발신일:1949.06.05

발신자:보드뱅 신부(예산)

수신자:제라르 신부(파리)

… 생제 신부는 베르트랑 신부가 있었던 논산 본당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소문으로 먼저 알았는데 후에 주교님이 직접 말씀해주시더군요. 주교님은 참사회를 자주 소집할 수 없고 편지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혼자 인사발령을 합니다. 참사위원이면서 대전에 있는 조제, 샤보 두 신부는 이것을 알았고 조제 신부는 조금 불평했습니다. 그는 생제 신부가 대전 본당의 주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의견도 마찬가지로요. 주교님이 생제 신부를 대전으로 발령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서울대목구에 속한 오기선 신부에게 감히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이하 생략)

2) 대전교구 1949년도 보고서

발신일:1949.

발신자:천주교 대전교구(대전)

수신자:파리외방전교회 본부(파리)

… 우리 선교사들 각자의 활동을 간단히 적겠습니다. 현재 알레르 신부는 파리

본부 신학교의 교수 자리로 복귀하기 위해 우리를 떠났습니다. 생제 신부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차서 중요한 논산 본당을 맡았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7월 초에 입국한 틀뢰 신부는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은 폐랭 신부를 돕기 위해 합덕으로 파견되었습니다. … (이하 생략)

3) 연중보고서(연대기)³³⁶

발신일:1950.05.

발신자:보드뱅 신부(대전)

수신자:뵐탕 편집부(홍콩)

… 이에 앞서 라리보 주교님은 논산에서 200명 이상의 교우들에게 견진성사를 주었죠. 부활절에 천안에서는 40명 이상의 성인 영세자가 있었고, 대전에서는 34명, 서산에서는 30여 명이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놀라우리만큼 무소식이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동료들의 다소 놀라운 성과 앞에 그들의 보잘 것 없는 것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워 그랬을까요? … (이하 생략)

4) 6·25 전쟁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

발신일:1950.07.22.

발신자:보드뱅 신부(부산)

수신자:아노즈 신부(로마)

… 7월 18일에 공주의 시잘레 신부가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7월 13일에 그는 생제 신부를 만나러 오토바이를 타고 남쪽으로 3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논산에 갔었습니다. 바로 전날 생제 신부는 강경(동쪽으로 7킬로미터)에 있는 베르몽 신부를 찾아갔었는데 말라리아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긴박하므로 그는 베르몽 신

부에게 노자성체를 영해주고 기름을 발라준 다음 감실의 성체를 영했습니다. 베르몽 신부는 생제 신부에게 자신을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서요.³³⁷ 14일 아침에 시잘레 신부는 공주로 되돌아가며 피난 가는 교우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텅 빈 공주로 가기로 결심했죠. 적의 포탄들이 불길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아무도 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고 논산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생제 신부는 한 시간 전에 전주를 향해 자전거로 떠났더랍니다. 시잘레 신부는 46킬로미터 떨어진 대전에 가기로 결심했죠. 길은 논산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논산으로 가는 피난민들로 붐볐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의 행렬도. 그는 아침 10시경에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트럭은 한 시간 전에 떠났고 집을 지키던 두 교우들이 너무나 반갑게 그를 맞이했죠. 미군 당국자들과 협의한 후 그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피난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작은 통에 청어를 쌓아놓은 것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한 칸에 천 명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시잘레 신부는 대구에 내려 우리 소식을 알았습니다. 이후 우리를 만났죠.

생제 신부는 어제 21일 밤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로 논산을 떠나 전주, 정읍, 장성을 향했죠. 피난민들로 뒤덮인 길을 따라 200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광주에서 그는 골롬반회의 아일랜드 신부들 집에 묵었습니다. 주임인 모나한³³⁸ Monaghan 신부는 한국에 온 신참 선교사인 세비지^{Savage} 신부를 생제 신부와 함께 부산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제 신부는 신학생에게 자전거를 맡기고 세비지 신부의 “지프”차에 올랐습니다. 생제 신부는 논산에서 서울 대신학교 학장인 정 신부와 서울 박 프란치스코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제인 7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걸어 왔더랍니다. 생제 신부는 각자에게 2천 엔씩 주었습니다. 그들은 금강 남쪽의 강경에서 서쪽으로 5킬로미터 떨어진 나바위 본당 관할의 작은 교우촌으로 피신할 예정이었습니다. ... (이하 생략)

5) 전쟁 상황과 연중보고서(연대기)

발신일:1950.08.08.

발신자:보드뱅 신부(부산)

수신자:제라르 신부(파리)

... 시잘레 신부는 며칠이 지난 후 우리에게 왔습니다. 7월 14일에 그는 공주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미 포탄들이 여러 곳에 불길을 일으키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짐 두 개만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논산의 생제 신부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자전거로 전주로 떠났죠. 논산은 ○○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생제 신부는 논산에서 남서쪽으로 7킬로미터 떨어진 강경에 있는 베르몽 신부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베르몽 신부가 말라리아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았죠. 상황이 급박하므로 노자성체를 영해주고 중부성사도 주었습니다. 베르몽 신부는 생제 신부에게 자신을 남겨두고 최대한 빨리 떠나라고 간청하더랍니다. 자신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서요. 교우들이 베르몽 신부를 산속의 한 공소로 들어 낚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³³⁹ 강경 역시 파괴되었으니까요. ... (이하 생략)

6) 포항과 대전 목동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학살 소식

발신일:1950.10.11.

발신자:보드뱅 신부(대전)

수신자:제라르 신부(파리)

친애하는 제라르 신부님,

저는 라리보 주교님께 여러 번(그분이 떠난 이후 9통) 편지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가신 이후,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구에 고립된 이후 아직도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제 편지들을 신부님께 전해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래에 우

리 소식을 간단히 전합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저는 생제 신부를 동반하여 포항에 갔습니다. 무세 주교님과 텔랑드, 타케, 뤼카 신부는 건강하고 무사합니다. 동정녀들, 할머니들, 고아들, 짐들 그리고 베르트랑 신부님의 것들도 모두 무사합니다(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소문과 달리 그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형산강 오른쪽, 도시 남동쪽 4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본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공산군들은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강 왼편에 있었고 우리 군인들은 오른쪽에 있었죠(...). 제가 ○○ 방문부터 부산에 돌아오기까지의 10쪽 분량의 보고서를 『뵐탱』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0월 5일에 저는 대구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9월 30일에 부산을 떠난 시잘레 신부와 10월 4일에 떠난 생제 신부를 오후 4시쯤 거기서 만났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군 주둔지로 갔는데 군종 대령인 셰리Sherry 주교님 덕분에 대전으로 가는 작은 트럭을 즉시로 구했습니다. 생제 신부는 그의 안내자를 통해 ○○ 부트 신부의 지프차로 떠났죠. 저는 시잘레 신부, 생제 신부가 창설한 성가소녀회 수녀 한 명, 제 식모와 함께 떠났고요. 군대 수송단 등이 통과하는 길이 너무 혼잡하여 7일 토요일 오전 6시쯤에야 대전에 도착했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본당 주임 오기선 신부의 사제관에서 미사를 드리고 옛 주교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을 보고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은 아직 서 있지만 온통 망가졌고, 이 일본식 집의 창문들은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창문들을 되찾아서 지금은 그럭저럭 목을 만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많이 흠쳐 갔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물건을 되찾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책들은 아주 많이 되찾았고 가구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1년을 살 수 있도록 쌓아놓은 장작더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반 이상의 책들과 가구들 1/4 정도는 되찾을 것 같습니다. 미군들이 다량으로 그것들을 주었으니 우리가 사용하는 데에는 충분하겠죠.

... (중략) ...

물질적인 손실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성당이 거의 약탈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안(부분적으로만), 온양, 공세리, 예산, 합덕, 당진, 강경, 논산, 금사리, 공주의 성당과 사제관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오기선 신부의 성당만이 완전히 불탔을 뿐입니다. ... (이하 생략)

7) 1·4후퇴 후 부산 피난지의 소식

발신일:1951.02.26.

발신자:보드뱅 신부(부산)

수신자:제라르 신부(파리)

친애하는 제라르 신부님,

신부님께 편지를 쓰고 성영회 관련 보고서를 동봉해 보낸 후 얼마 있다가 신부님의 12월 3일 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내주신 많은 소식과 조각 신문기사들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동료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각자에게 줄 것들을 건네주었지요. 제게 전해달라고 한 몰리마르 신부의 형이 쓴 편지를 반송합니다. 이 편지는 1950년 12월 3일 자 우편물에 동봉되어 왔다. 몰리마르 신부는 대전 목동 수도원에 서 그 시신이 발견되어 죽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편지를 반송하는 것이다.

대전에서 저는 님Nimes의 주교님과 몰리마르 씨를 위해 생제 신부의 편지와 금사리 본당 교우들의 편지, 그리고 몰리마르 신부의 영광스러운 죽음, 정확히 말하면 그의 순교에 조의를 표하는 저의 편지를 그곳 주교관으로 보냈습니다.

... (중략) ...

대전에 있는 우리 집들은 미군 부대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논산의 사제관에 머물고 있는 터키 군인들은 휘발유로 난방을 하다가 불을 냈죠. 가련한 생제 신부는 되찾을 것이 훨씬 적어졌고 복귀 후에는 더 이상 그의 예쁜 사제관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 (이하 생략)

8) 연중보고서(1950~1951년)

발신일:1951.07.17.

발신자:라리보 주교(프랑스)

수신자:파리외방전교회 본부(파리)

금강 남쪽에 있는 본당들은 공산군이 도달하기 전에 미군들을 맞았는데, 미군들은 전투가 벌어질 장소에 있던 선교사들에게 남쪽으로 피신하라고 강권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숨을 건진 몇몇 동료들을 가지는 행운을 얻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주의 시잘레 신부, 논산의 생제 신부, 대전에 있던 네 명의 신부들(보드뎡, 포이요, 조제, 샤보)과 한국인 오기선 신부는 마지막 순간에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베르몽 신부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산골짜기로 피신했고요. 정확히 금강 하구(역주: 장항본당)에 머물던 프로망투 신부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남쪽을 향했습니다.

… (중략) …

서울에 있던 네 명의 선교사들 즉 샤르트르 수녀원의 지도신부인 비에모 신부, 가르멜과 성가소비녀회 한국 수녀들의 지도신부인 앙투안 공베르 신부, 몇 달 전부터 공베르 신부와 함께 머물던 코요스 신부, 마지막으로 인천의 샤르트르 수녀원과 고아원의 지도신부인 윌리엄 공베르 신부, 이렇게 네 명의 동료들은 7월 16일에 체포되어 북쪽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샤르트르회 프랑스 수녀 2명, 가르멜 수녀 5명, 프랑스인 3명, 벨기에인 2명과 함께요. 아무도 이들의 소식을 모릅니다. … (이하 생략)

9) 연중보고서(1955년)

발신일:1955.

발신자:라리보 주교(대전)

수신자:총장 주교(파리)

… 이제 논산으로 넘어가 논산에서 큰 중고등학교를 맡고 있는 생제 신부의 본당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착하고 열렬한 교우들과, 수많은 교우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매 주일 있는 네 대의 미사에는 모든 교우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땅이 적합하지 않아 이 어려움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꼭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논산의 다른 장소에 성당을 짓는 것도 해결책인 듯합니다. 현재의 성당은 전적으로 학교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 좋고요. 다른 열성적인 신부가 800명의 학생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현재의 본당 신부에게 열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고 제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좌 신부를 주어야만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큰 학교 옆에는 유치원과, 우리 교구에서는 오직 하나뿐인 작은 양로원도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미국인 후원자들의 지향에 따라 끓인 우유를 상시로 나누어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릇을 가지고 옵니다.³⁴⁰ 이런 봉사는 샬트르 성 바오로회 한국 수녀들의 협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착한 수녀들은 시약소도 운영합니다. 논산·공주·서산 본당, 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수녀들은 복음화에 좋은 효과를 내는 협조자들입니다. 논산과 공주의 보건소dispensaire, 서산의 작은 병원을 통해 수녀들은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진리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습니다. ... (이하 생략)

VI. PATRITIUS FLYNN 주교의
성녀 베르나데트 유해봉안 증명서

*Est in altare Eulanae
N.º 12 laudes in Niverni
Niverni 11 oct 1961*



PATRITIUS FLYNN

Dei Gratia et Apostolicae Sedis, Episcopus Nivernensis

Omnibus et singulis praesentes litteras inspecturis fidem
facimus Nos, ex authenticis locis desumpta *m* recognovisse
sacra *m* particulam *ex carne*
Sanctae Mariae-Bernardae Soubirous
Virginis

quam ~~re~~reverenter deposuimus in theca *argentea*
forma retunda
rite clausa sigilloque Nostro in cera rubra impresso
obsignata, ac inde has sacras reliquias fidelium cultui
sive privato sive publico proponi et exhiberi posse.

Datum Nivernis, sub signo *N. Pivani* *ali* sigilloque
Nostr *o* ac Cancellarii Nostri subscriptione, die *no*
no mensis *martii* anno Domini
millesimo nongentesimo *quingagesimo sexto*

P. Jarry
pr. Nic. gen.

De Mandato : *M. Andrieu*

〈원문〉

PATRITIUS FLYNN

Dei Gratia et Apostolicae Sedis, Episcopus Nivernensis

Omnibus et singulis presents litteras inspecturis fidem facimus Nos, ex authenticis locis desumptam recognovisse sacram particulam (ex carne Sanctae Mariae — Bernardae Soubirous Virginis)

quam reverenter deposuimus in theca (argentea forma rotunda) rite clausa sigilloque Nostro in cera rubra impresso obsignata, ac inde has sacras reliquias fidelium cultui sive privato sive publico proponi et exhiberi posse.

Datum Nivernis, sub signo (N. Vicarii Generali) sigilloque Nostro ac Cancellarii Nostri subscriptione, die (nona) mensis martii anno Domini millesimo nongentesimo (quingagesimo sexto)

서명

De mandato :

〈번역〉

니베르의 주교 빠트리티우스 플린은 하느님과 사도좌의 은총으로 본 서한을 보게 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 거룩한 유해는 믿을 만한 장소에서 ‘성모 마리아의 베르나데트 수비루 수녀의 시신’으로부터 추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해를 경건하게 원형의 은상자에 모셨으며, 늘 하던 대로 우리의 인장을 붉은 밀랍에 찍어 봉인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유해는 개별적이거나 공적인 신심과 공경을 위해 공개되거나 현시가 가능합니다.

1956년 5월 9일 나의 날인과 함께 총대리와 사무처장의 서명으로 니베르 교구에서 보냄.

이 자료는 프랑스 니베르 교구의 파트리시오 플린 주교 명의로 발행된 베르나데트 성녀의 유해 봉안 증명서이다. 베르나데트 성녀는 루르드의 성모 발현의 목격자로서, 훗날 니베르의 애덕의 수녀회에 입회하였고, 1879년 4월 16일 선종하였다. 1933년 12월 8일 시성된 성녀의 유해는 니베르의 모원 성당에 안치되어 있다.

문서의 좌측 상단에 ‘St in altare ecclesiae N.D. de Lourdes in Nonsan. Nonsan 11 Oct 1961’라는 내용과 생제 신부의 친필서명이 기록되어 있다. 1961년 10월 11일은 논산 새 성당 봉헌일로, 성녀의 유해가 본당 제대에 안치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현재 성녀의 유해는 본당에 남아있지 않다. 윤종관 신부에 의하면, 홍산본당 재임 시절의 생제 신부가 베르나데트 성녀의 봉인된 유해함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성녀의 유해함은 생제 신부 개인 소장물인 것으로 추정되나 루르드의 성모 성당인 논산본당에 베르나데트 성녀의 유해를 모심으로써 성모신심과 베르나데트 성녀의 신심을 본당 교우들에게 고양시키려 했던 생제 신부의 지향을 설명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주

- 1 당시 연산현은 지금의 연산면, 벌곡면, 부적면, 양촌면, 두마면 일대를 관할하는 큰 고을이었다. 따라서 옛 기록에 나타나는 연산은 넓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 2 이석원, 「조선 후기 진산지역 천주교 신자의 거주지 이동」, 『교회사학』 13, 수원교회사연구소, 2016, 53~100쪽.
- 3 한글학회 엮음,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상)』, 한글학회, 2001(3쇄), 188쪽.
- 4 충남 금산군 남이면 신정리와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의 경계에 있는 마을이다.
- 5 달래의 『한국천주교회사』에는 계유년癸酉年(1813)으로 기록되어 있다.
- 6 김진소 지음, 『천주교 전주교구사』 1, 박벨출판사, 1998, 268~269쪽.
- 7 김병상 외 저, 오기선 감수, 『聖地』 I, 동림문화사, 1981, 188~189쪽.
- 8 샤를 살몽 지음, 정현명 옮김, 『성 다블뤼 주교의 생애』, 대전가톨릭대학교 출판부, 천주교 대전교구 갈매꽃성지, 2006, 253~254쪽.
- 9 다블뤼 저, 유소연 역,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내포교회사연구소, 2014, 403쪽.
- 10 차기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일행의 1845년 입국 장소와 강경 유숙지 연구」, 『교회사학』 11, 수원교회사연구소, 2014, 156~159쪽.
- 11 Jézégou, R·엄윤숙·이정운 역, 수원교회사연구소 편, 『페레올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2, 369~371쪽.

- 12 정진석 역, 『이 빈들에 당신의 영광이:김대건 신부의 편지 모음집』, 바오로딸, 2006, 117쪽.
- 13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저,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54~55쪽; 58~59쪽; 92~93쪽; 100~101쪽.
- 14 『이 빈들에 당신의 영광이:김대건 신부의 편지 모음집』, 115쪽.
- 15 오기선, 『곡예사같은 인생』, 서광사, 1978, 62~63쪽.
- 16 김정환, 「조선 후기의 천주교 수용」, 『내포 천주교의 역사와 문화』, 내포교회사연구소, 2012, 20~21쪽; 방상근, 『19세기 중반 한국 천주교사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60쪽. 방상근은 푸르티에 신부, 프티니콜라 신부가 담당하는 충청도 배론의 성요셉 신학교도 별도의 관할로 보고 8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 17 『19세기 중반 한국 천주교사 연구』, 77쪽.
- 18 대둔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 세 보가 있는데 가운데 보가 있는 곳을 ‘중보실’이라 불렀다(『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상)』, 186쪽)
- 19 김수환 구술, 평화신문 엮음,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김수환 추기경 회고록』, 평화방송·평화신문, 2004, 226·437쪽; 구중서 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세요:김수환 추기경 평전』, 책만드는집, 2009, 28~29쪽.
- 20 충남 청양군 대치면 형산리에 있는 산말에서 공주시 신평면 쌍대리 집때로 넘어가는 고개.
- 21 『치명일기』에는 “병인 12월 12일, 65세의 나이로 치명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22 병자수호조약, 강화도조약이라고도 부른다.
- 23 최진승崔鎭勝, 최을돌崔兀堦이라고도 부른다.
- 24 현재 논산시 벌곡면 조동리이다. 조동리는 1914년 옛 진잠군 하남면 우명리牛鳴里(현 대전광역시 서구 우명동. 일명 울어울)를 일부 포함하여 논산에 속하였다(『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상)』, 188쪽). 반면 우명동은 조동리 일부를 포함하여 대전에 편입되었다(같은 책, 315쪽). 장정선이 ‘연산 동면’의 오리울로 이사하였으므로 우명리의 위치를 조동리로 판단하였다. 조선 시대에 벌곡면은 연산의 동쪽에 있다 하여 동면東面이라 했었다(『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상)』, 185쪽). 참고로,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에 속한 오동에 ‘진잠 오리울’이 있다(이석원, 「조선 후기 진잠과 주변 지역의 천주교 신앙공동체」, 『교회사학』 14, 수원교회사연구소, 2017, 29쪽).
- 25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상)』, 227쪽.
- 26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에도 ‘바랑굴’이 있다.
- 27 교안敎案이란 유교적 동양 전통사회에 있어서 개항정책에 따라 서구 열강과의 외교적 관

계가 맺어진 후 반프그리스도교의 사회분쟁이 외교적 절충을 거쳐 해결된 사안(事案)을 뜻한다.

- 28 『천주교 전주교구사』 1, 656쪽.
- 29 천주교 대전교구 60년사 편찬위원회, 『대전교구 60년사』, 천주교 대전교구, 208, 158~162쪽; 김진소 저, 『(천주교 전주교구사 연구자료집 제2집) 1882~1986 교세통계표』, 호남교회사연구소, 1987, 18~19쪽.
- 30 충남 논산시 부적면 부황리, 외성리 일대로 추정된다.
- 31 1878년 11월 28일 드케트 신부 편지.
- 32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상)』, 200쪽; 대전교구 홍보국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천주교 대전교구, 1990, 12쪽, 44~45쪽; 『(천주교 전주교구사 연구자료집 제2집) 1882~1986 교세통계표』, 328~329쪽.
- 33 『(천주교 전주교구사 연구자료집 제2집) 1882~1986 교세통계표』, 114~115쪽, 328~329쪽.
- 34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상)』, 202쪽
- 35 충남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에 있던 공소 중 하나이다.
- 36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110~111쪽.
- 37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상)』, 202쪽.
- 38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120~121쪽.
- 39 연무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연무본당 50년사』, 천주교 연무성당, 2008, 94~100쪽;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20~21쪽.
- 40 천주교 대전교구 홍보국, 「공소 탐방: 갈매울공소」, 『뚝뚝』 33, 천주교 대전교구, 1987, 14~15쪽;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34~35쪽; 『뫼텔 주교 일기』 1896년 11월 4~7일; 『천주교 전주교구사』 1, 579~580쪽; 한국교회사연구소, 대전교구 홍보국,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천주교 대전교구, 1994, 706쪽; 『연무본당 50년사』, 104~106쪽.
- 41 『연무본당 50년사』, 101~103쪽, 112~114쪽;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68~69쪽; 『천주교 전주교구사』 1, 1282쪽; 『병인

- 치명사적』 1권, 34~35쪽; 『뫼텔 주교 일기』 1905년 12월 30일.
- 42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 (상)』, 214쪽;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88~89쪽; 『(천주교 전주교구사 연구자료집 제2집) 1882~1986 교세통계표』, 328~329쪽.
- 43 박찬근 루도비코(1933년생)의 증언. 증언 청취일: 2016년 1월 10일, 논산본당 사제 집무실.
- 44 두 대 공소: 본당신부가 이틀을 머물며 판공성사를 집행하는 공소. 옛날에는 매일 새벽에 미사를 한 대 봉헌하고 판공성사에 들어갔기에 미사를 기준으로 공소의 판공 일수를 계산하였다.
- 45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상)』, 196쪽;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88~89쪽, 114~115쪽, 02~203쪽.
- 46 중동본당 100년사 편찬위원회, 『중동본당 100년사』, 천주교 대전교구 공주 중동교회, 1997, 446~447쪽.
- 47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486~487쪽.
- 48 김정환, 「근현대 진잠의 천주교」, 『교회사학』 14, 수원교회사연구소, 2017, 75~108쪽.
- 49 편집부, 「공소 탐방: 벌곡공소」, 『뚝방』 43, 천주교 대전교구, 1988, 16~17쪽. 이 외에도 몇몇 자료를 참조하여 연도와 지명 등을 바로잡았다.
- 50 김팔용의 세례명이 '다두'(타테오) 혹은 '요셉'이라는 기록도 있다.
- 51 거북리는 연산면 임리에 있는 마을로 유기점촌이었다. 자료편의 하영호 시몬의 「백석 강당 약사」 내용을 참고할 것.
- 52 가수원본당은 1950년대 후반에 진잠공소로 출발하였고, 1979년 9월 10일 '진잠본당'이라는 명칭으로 유천동본당에서 분리·승격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전의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쪽 끝에 위치하던 진잠은 정체되었고, 결국 1989년 12월 13일부로 가수원에 새로운 부지로 본당을 옮겼다. 그러면서 명칭도 '가수원본당'이 되었다. 구 진잠본당은 공소가 되었으며, 가수원본당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2001년 2월 8일, 진잠공소(구 진잠본당)는 '원내동본당'으로 승격되어 가수원본당에 분리되었고, 2006년 10월 1일 명칭이 '원내동'에서 '진잠'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김정환, 「근현대 진잠의 천주교」, 『교회사학』 14, 수원교회사연구소, 2017, 94~99쪽.
- 53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34~35쪽.

- 54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44~45쪽.
- 55 종두목은 종연리와 두월리의 앞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 56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78~79쪽.
- 57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상)』, 216쪽.
- 58 허창덕 역, 「대구교구 설정 교황령 1911」, 『교회와 역사』 72·7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1, 2쪽.
- 59 안세화 저, 이종홍 역, 『안세화주교 공문집:대구대교구 초대교구장(1911-1938)』, 천주교 대구대교구, 2003, 34쪽.
- 60 『드망즈 주교 일기』 1911년 12월 15일.
- 61 두 교구의 분할에 관한 내용 전반은 최석우, 「대구교구 경계선의 확정」, 『한국 교회사의 탐구』 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273~300쪽과 『천주교 전주교구사』 1, 769~773쪽을 참조하였다.
- 62 『안세화주교 공문집:대구대교구 초대교구장』, 33쪽.
- 63 『드망즈 주교 일기』 1914년 5월 19일, 6월 1일; 1918년 2월 26일.
- 64 『드망즈 주교 일기』 1915년 8월 26일,
- 65 『드망즈 주교 일기』 1921년 5월 7일, 12일, 14일, 10월 6일.
- 66 논산 대건 50년사 편찬실, 『논산 대건 50년사』, 논산대건중·고등학교, 1996 19쪽.
- 67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714쪽.
- 68 『천주교 전주교구사』 1, 737~738쪽.
- 69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691~692쪽.
- 70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692쪽
- 71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692쪽.
- 72 『논산 대건 50년사』, 21~22쪽.
- 73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692쪽.
- 74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697쪽. 일반적으로 ‘회장 피정’은 공소회장들뿐만 아니라 교우들의 참여도 가능하여 오늘날의 본당 특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 75 갈매울공소, 혹은 강경공소로 추측된다.
- 76 『경향잡지』 512(1923년 2월호), 87쪽.

- 77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697쪽.
- 78 『뫼텔 주교 일기』 1923년 6월 8일.
- 79 김문수 신부 편저, 『금사리본당 100년사』, 천주교 대전교구 금사리교회, 2000, 188쪽;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710~711쪽.
- 80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705~711쪽; 『대전교구사 자료 제
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426쪽.
- 81 이는 공베르 신부의 두 번째 서한에서도 나타난다.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의방전교
회 선교사 서한집, 711쪽.
- 82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710쪽.
- 83 『뫼텔 주교 일기』 1924년 7월 15일.
- 84 『천주교 전주교구사』 1, 891~895쪽; 김후상 저, 『전주교구 화산 천주교회 약사』, 화산 천
주교회, 1953, 35쪽.
- 85 『뫼텔 주교 일기』 1924년 11월 5일.
- 86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서울교구연보』 (Ⅱ), 명동천주교회 1987, 277쪽.
- 87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125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125년사』, 샬
트르성바오로수녀회, 2014, 62쪽.
- 88 『경향잡지』 930(1941년 1월호), 16쪽.
- 89 『경향잡지』 983(1947년 2월호), 28쪽.
- 90 『경향잡지』 928(1940년 11월호), 281쪽.
- 91 『경향잡지』 936(1941년 7월호), 153~154쪽.
- 92 『조선총독부 관보』 1941년 8월 25일(185).
- 93 『경향잡지』 947(1942년 6월호), 46쪽.
- 94 『조선총독부 관보』 1943년 4월 12일.
- 95 『경향잡지』 951(1942년 10월호), 78쪽.
- 96 『경향잡지』 943(1942년 2월호), 14쪽.
- 97 『경향잡지』 947(1942년 6월호), 46쪽.
- 98 『경향잡지』 961(1943년 8월호), 62쪽.
- 99 『조선총독부 관보』 1943년 9월 10일(291), 9월 28일(296).
- 100 박경래 요아킴의 증언(1932년생).
- 101 『경향잡지』 969(1944년 4월호), 30쪽.
- 102 『한국가톨릭대사전』 12권, ‘황정수’, ‘하우현본당’ 항목.

- 103 『경향잡지』 973(1944년 11월호), 91쪽.
- 104 『조선총독부 관보』 1944년 3월 15일(349).
- 105 『경향잡지』 972(1944년 9월호), 69쪽.
- 106 『경향잡지』 968(1944년 3월호), 22쪽.
- 107 『조선총독부 관보』 1943년 9월 10일(291).
- 108 『논산 대건 50년사』, 23쪽.
- 109 『성 다블뤼 주교의 생애』, 253~255쪽.
- 110 강경본당 연혁에는 박귀훈 신부가 8월 15일에 부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이날을 본당 설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 111 「가톨릭신문」 1953년 10월 28일, 4면 기사.
- 112 『논산 대건 50년사』, 30쪽.
- 113 『논산 대건 50년사』, 40쪽.
- 114 『논산 대건 50년사』, 40쪽.
- 115 『논산 대건 50년사』, 40~41쪽.
- 116 『논산 대건 50년사』, 43~44쪽.
- 117 김레오, 『성재덕 생애』, 성가소비녀회, 2015, 109쪽.
- 118 『성재덕 생애』, 113~114쪽.
- 119 『경향잡지』 982(1947년 1월호), 12쪽.
- 120 『경향잡지』 1002(1948년 9월호), 140쪽.
- 121 소신학교인 서울 성신중학교이다. 1971년 중학입시제도의 개편으로 폐교되었다.
- 122 신당동성당 홈페이지 <http://www.sohwa.org>.
- 123 공세리본당 100년사 편찬위원회, 『공세리본당 100년사』, 천주교 대전교구 공세리교회, 1998, 158쪽; 천주교 대전교구 60년사 편찬위원회, 『대전교구에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문서-』, 천주교 대전교구, 2008, 37쪽.
- 124 『경향잡지』 1011(1949년 6월호), 92쪽.
- 125 『대전교구에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문서-』, 37쪽.
- 126 『경향잡지』 1011(1949년 6월호), 91쪽.
- 127 성가소비녀회,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2004, 20쪽.
- 128 『성재덕 생애』, 108~109쪽.
- 129 『경향잡지』 1016(1949년 11월호), 171쪽.
- 130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137~150쪽.

- 131 일부 자료에는 1874년생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 132 전쟁 중 논산본당 상황에 대해서는 박경래 요아킴(1932년생)과 박찬근 루도비코(1933년생)의 증언을 참조하였다.
- 133 『전주교구 화산 천주교회 약사』, 54쪽.
- 134 『성재덕 생애』, 119쪽.
- 135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2004, 105쪽.
- 136 『전주교구 화산 천주교회 약사』, 54쪽.
- 137 『성재덕 신부 서한집』, 98쪽.
- 138 『전주교구 화산 천주교회 약사』, 52~54쪽.
- 139 최승룡, 「김명제 신부의 서한」, 『교회와 역사』 325,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3쪽.
- 140 임충신, 『노사제가 만화로 읽는 신학교 이야기들』, 가톨릭출판사, 2002(2쇄), 7쪽.
- 141 금사리본당은 전쟁 후 본당신부의 공석 혹은 교체로 말미암아 통계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못한 듯하다.
- 142 당진과 서산본당은 주임 신부가 모두 피살되었기 때문에 한국인 신부가 파견되어 한 동안 두 본당을 함께 관할하였다. 이 과정에서 1953년 이전에 당진과 서산본당 사이에 관할구역 조정이 있었던 듯하다. 1953년 당진본당은 119.4% 증가하고, 서산본당이 14.5%로 감소하였다.
- 143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40쪽.
- 144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연구소, 『천주교 대전교구 공소 현황 조사연구』, 천주교 대전교구, 2017, 88쪽.
- 145 이후 1975년 9월 논산 대교동본당이 분리되면서 현재 논산 대교동본당 관할 공소가 되었다. 『천주교 대전교구 공소 현황 조사연구』, 82쪽.
- 146 『천주교 대전교구 공소 현황 조사연구』, 86쪽.
- 147 이후 화마루공소는 1957년 공주본당 파이에(Paillet, Auguste Eugène, 1906~1998, 한국명: 방여중) 신부와 생제 신부가 협의하여 공주본당 소속으로 이전되었다. 『중동본당 100년사』, 312쪽.
- 148 『경향잡지』, 1067(1957년 6월호), 218~219쪽.
- 149 천주교 당진본당사 편찬위원회, 『천주교 당진본당사 70주년 기념집』, 대전교구 당진성당, 2011, 120~121쪽.
- 150 『대전교구에서-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문서-』, 170쪽.
- 151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991, 511쪽.
- 152 『한국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347쪽.
- 153 호남교회사연구소 엮음, 『천주교 전주교구사』 2, 빅벨출판사, 1998, 695쪽.
- 154 『한국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347쪽.
- 155 『대전교구에서』, 170쪽.
- 156 천주교 대전교구 홍보국, 「공소 탐방: 성광원공소」, 『뚝방』 16, 천주교 대전교구, 1986, 10쪽.
- 157 『경향잡지』 1103(1960년 2월호), 74쪽.
- 158 『경향잡지』 1112(1960년 11월호), 547~548쪽.
- 159 『경향잡지』 1112(1960년 11월호), 547쪽.
- 160 『경향잡지』 1122(1961년 9월호), 490~491쪽.
- 161 『성재덕 생애』, 128쪽;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35쪽.
- 162 『성재덕 생애』, 136쪽;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56쪽.
- 163 『성재덕 생애』, 132쪽;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46~48쪽.
- 164 12월 28일에 봉헌했다는 기록도 있다.
- 165 한국 레지오마리에 협의회, 『한국 레지오 마리에 50년사』, 한국 레지오마리에 협의회, 2003, 1138~1139쪽.
- 166 평화의 모후 레지아 편찬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레지오 마리에 50년사』, 대전교구 평화의 모후 레지아, 2008, 19~20쪽.
- 167 『경향잡지』 1091(1959년 2월호), 59쪽; 『경향잡지』 1113(1960년 12월호), 605쪽.
- 168 최미자, 「블랑 신부의 본당 사목」, 『(2018년 국사학과 학술발표회)프랑스 선교사와 충청도』,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18, 102쪽.
- 169 『대전교구 60년사』, 39쪽.
- 170 『연무본당 50년사』, 129쪽.
- 171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45쪽.
- 172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52쪽.
- 173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53쪽.
- 174 『성재덕 생애』, 139쪽.
- 175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61쪽.
- 176 『경향잡지』 1124(1961년 11월호), 626쪽.
- 177 『성재덕 생애』, 140쪽.

- 178 박도원 저, 최석우 감수, 『(한국천주교회의 대부)노기남 대주교』,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408쪽.
- 179 백석공소의 초기 역사는 하영호 시몬의 「백석 강당 약사」에 자세히 실려 있다.
- 180 『천주교 대전교구 공소 현황 조사연구』(2017)에는 백석공소 설립연도를 1949년으로 보았으며, 강당은 1965년에 건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181 『논산 대건 50년사』, 140~148쪽.
- 182 『경향잡지』 1121(1961년 8월호), 430쪽.
- 183 한국 살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85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살트르 성바오로 수도회)바오로 뜰 안의 애환 85년』, 가톨릭출판사, 1973, 560~565쪽.
- 184 『경향잡지』 1127(1962년 2월호), 110쪽.
- 185 『논산 대건 50년사』, 147쪽.
- 186 개교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썬뿔 50주년:빛과 희망을 열다』, 썬뿔여자중·고등학교, 2012, 46쪽.
- 187 서울성가소비녀회 편, 『(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60주년 기념자료집)Pierre Singer 서한집』 제2집, 서울성가소비녀회, 2004, 98쪽.
- 188 서울성가소비녀회 역사자료실 편, 『(서울성가소비녀회 50주년사 기념자료집 제2집)성재덕 신부 서한집』, 서울성가소비녀회, 1993, 163쪽.
- 189 『성재덕 생애』, 144~147쪽.
- 190 『논산 대건 50년사』, 158쪽.
- 191 『경향잡지』 1149(1963년 12월호), 608~609쪽.
- 192 『경향잡지』 1156(1964년 7월호), 339쪽.
- 193 이후 1966년 한국을 떠나 프랑스로 귀국했으며, 파리외방전교회를 탈퇴하고 칠레로 갔다는 내용과 1969년까지 사제로 활동한 기록이 간단히 남아 있을 뿐이다.
- 194 황민성, 「대전교구 제2대 교구장에 취임하면서」, 『경향잡지』 1168(1965년 7월호), 5~6쪽.
- 195 『가톨릭시보』 486, 1965년 9월 12일 자.
- 196 『경향잡지』 1168(1965년 7월호), 33쪽.
- 197 2012년 10월 3일 손만재 신부 구술, 윤중관 신부 녹취.
- 198 증언을 토대로 서품식 및 첫 미사로 추정되는 사진을 확인한 결과, 서품식은 낭시 주교좌 성당Cathédrale Notre Dame de l'Annonciation에서, 첫 미사는 성 피아크르 성당Église Saint-Fiacre de Nancy에서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 199 『논산 대건 50년사』, 158쪽.

- 200 『경향잡지』 1156(1964년 7월호), 10쪽.
- 201 『가톨릭시보』 510, 1966년 3월 13일 자.
- 202 『가톨릭시보』 557, 1967년 2월 26일 자:논산 천주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교세일람표를 책자로 만들었다. 구랍 31일 현재로 본당의 연혁을 비롯하여 본당 편제·임원·신자상황·신자분포상황·전교상황·공익사업현황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일목요연하게 본당 상황을 알 수 있게 했으며 특히 신자 상황에 남녀 호구별·연령별·직업별로 구분하여 전 교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 같다. 1966년 12월 31일 현재 본당 신자수는 본당 2,698명, 공소 1,425명, 합계 4,123명이다.
- 203 『가톨릭시보』 586, 1967년 9월 24일 자.
- 204 『가톨릭시보』 568, 1967년 5월 14일 자.
- 205 대흥동본당 100년사 편찬위원회, 『대흥동 본당 백년사』, 천주교 대전교구 대흥동본당, 2019, 88쪽.
- 206 『가톨릭시보』 484, 1965년 8월 29일 자.
- 207 1966년 6월 28일, 손만재 신부 서한.
- 208 『가톨릭시보』 527, 1966년 7월 17일 자.
- 209 『가톨릭시보』 481, 1965년 8월 1일 자.
- 210 논산 천주교회 편, 「교세일람(1966.12.31.현재)」, 논산 천주교회, 1966.
- 211 『가톨릭시보』 547, 1966년 12월 4일 자.
- 212 『가톨릭시보』 598, 1967년 12월 17일 자.
- 213 『가톨릭시보』 544, 1966년 11월 20일 자.
- 214 『가톨릭시보』 487, 1965년 9월 19일 자.
- 215 『가톨릭시보』 537, 1966년 10월 2일 자.
- 216 『가톨릭시보』 739, 1970년 10월 18일 자.
- 217 『가톨릭시보』 538, 1966년 10월 9일 자.
- 218 『가톨릭시보』 592, 1967년 11월 5일 자.
- 219 『가톨릭시보』 642, 1968년 11월 3일 자.
- 220 『가톨릭시보』 665, 1969년 4월 20일 자.
- 221 『가톨릭시보』 772, 1971년 6월 27일 자.
- 222 『경향잡지』 1264(1973년 7월호), 108쪽.
- 223 「Fertile Evangelii semen」, Acta Apostolicae Sedis 54(1962).
- 224 강인철, 「한국 교회의 사회 참여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사연구』 25, 한국교회사

- 연구소, 2005, 16~17쪽.
- 225 『경향잡지』, 1258(1973년 1월호), 64~66쪽.
- 226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696쪽.
- 227 『논산 대전 50년사』, 159쪽.
- 228 천주교 대전교구 남부지구 학생연합회, 「제2차 남부지구 고등학생 하기 생활교육 보고서」, 1975.
- 229 「대전주보」 481, 1981년 2월 22일 자.
- 230 「대전주보」 195, 1975년 9월 7일 자.
- 231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715쪽.
- 232 「대전주보」 567, 1982년 10월 17일 자.
- 233 「대전주보」 214, 1976년 1월 11일 자.
- 234 「대전주보」 337, 1978년 5월 21일 자.
- 235 『(대전교구사 자료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989 교세통계표』, 729~730쪽.
- 236 「대전주보」 422, 1980년 1월 6일 자.
- 237 내포교회사연구소 편, 『솔피성지의 역사』, 내포교회사연구소, 2020, 231쪽(미출판).
- 238 대전교구 사목 제119호, 1982년 9월 7일 자 공문.
- 239 「대전주보」 567, 1982년 10월 17일 자.
- 240 「루르드」 창간호, 1984년 3월 4일 자.
- 241 천주교 대전교구 접수번호 제879호, 1983년 9월 30일 접수공문
- 242 「루르드」 2, 1984년 4월, 6면.
- 243 「루르드」 27, 1986년 10월 1일 자, 8면.
- 244 「루르드」 28, 1986년 11월 1일 자, 8면.
- 245 「부창동천주교회 주보:루르드의 성모」 1, 1987년 4월 5일 자, 1면.
- 246 경갑룡 주교, 「연두 사목교서(1988년)」, 『교우들에게-대전교구장들의 교서-』, 천주교 대전교구, 2007, 230~231쪽.
- 247 「놀메두레」 창간호, 1996년 3월 3일 자.
- 248 「놀메두레」 11, 1996년 5월 12일 자.
- 249 『제삼천년기: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30항.
- 250 「연두 사목교서」 1997, 1998, 1999.
- 251 ‘교구장 99-1호 공문’, 1999년 1월 11일 자.

- 252 '교구장 99-3호 공문', 1999년 1월 30일 자.
- 253 '교구장 99-3호 공문', 1999년 1월 30일 자.
- 254 대전교구 제 04-1호, 2004년 1월 8일 자.
- 255 「놀메두레」 제417호, 2004년 2월 8일 자.
- 256 「놀메두레」 제415호, 2004년 1월 25일 자.
- 257 「놀메두레」 제437호, 2004년 6월 27일 자.
- 258 대전교구 2017-20호, 2017년 12월 11일 자 교구장 공문.
- 259 박노경(베드로), 박청자(요안나), 박노중(요셉)의 증언:박노경 형제가 들은 구전에 의하면 “초대 공소의 위치는 본정(현, 화지동)으로 구 논산읍사무소에서 구 논산극장으로 가는 골목을 통하여 내려가는 아래쪽 부근에 있었다.”고 한다.
- 260 『대전교구 60년사』, 160쪽.
- 261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693쪽.
- 262 박노경(베드로, 1936년생, 논산출생):2021년 1월 22일~23일 전화인터뷰. 박준철의 손자로 현재 대전 거주. 박준철은 초대 루블레 신부 재임 시기에 본당신부를 도와 부지 매입과 성당 및 사제관 건축에 협력했던 교우이다.
- 263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692쪽.
- 264 『논산 대진 50년사』, 21쪽.
- 265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710쪽.
- 266 『경향잡지』 536(1924년 2월호) 45~46쪽.
- 267 『대전교구 60년사』, 160쪽.
- 268 그리고 이틀 후인 8월 19일에 돌아왔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가톨릭신문 창간60주년 기념자료집)드망즈 주교 일기』, 가톨릭신문사, 1987, 579쪽.
- 269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105쪽.
- 270 서신 및 도면자료에서 루시앙 번이 직접 작성·제시한 모델 NO1-3과 각 도면에 기록된 ‘원설계자 루시앙 번LUCIEN BEUN’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태희 건축가가 어느 단계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도면작업을 완성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었다. 잔존하는 도면에 기록된 치수와 도면 글씨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태희 건축연구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치수는 척² 단위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271 루시앙 번 건축사무소 주소:Lambersart, 29, Avenue DU COLYSEE(랑베르사르, 콜리세 에브뉴 29)
- 272 프랑스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도면의 수치는 척² 단위 혹은 피트(1feet, 30.48cm)로

판단된다. 실시설계 도면에서는 처마높이를 22.10으로 기록하고 있어 미터법으로 6736mm가 되지만, 건축허가증에는 척 단위(1척, 30.303cm)인 22척(6666mm)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외벽체 부축벽 간격은 설계도면상 16.17(피트 단위일 경우 4928mm)로 기록되어 있고, 실측 결과로는 4900mm가 됨을 확인하였다. 도면상의 수치와 실측, 피트 혹은 척 단위로 볼 때 각각 근소한 차이가 있어 정확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추후 정밀실측과 관련 조사를 통해 밝힐 사안이라 본다.

- 273** 루시앙 번이 작성한 3가지 모델은 1957년 6월 4일 자 서신에 동봉하여 생제 신부에게 발송되었다. 잔존하는 모델은 NO.1, NO.3이며 축척 1/200로 작성하였다. 모델 NO.1은 도면철 B에, NO.3는 서신철에 각각 삽입되어 있다. 현재 모델 NO.2 원본과 사본은 찾지 못하였다.
- 274** 판독이 부분적으로 불가능한 글자는 '0'으로, 단어나 어절, 문장은 '……'로 표기하였고, 현장에서 통용되는 사항은 (*)안에 표기하였다.
- 275** “본 성당의 원설계는 불란서건축가(루시앙 번)의 안을 한국에서 실시설계를 작성한 것임으로 모든 척도, 의장구조, 평면등 가급적 원안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나 혹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사 및 신부의 지시에 의해서 완전시공할사. 특히 철근배근을 도면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배근완료시에는 감독기사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것”
- 276** 메종 베사크:1860년 설립된 스테인드글라스 설계제작 회사. 10, rue Emile-Gueymard, 10 GRENOBLE (Isère), FRANCE (프랑스 그르노블(이제르주) 10 에밀-귀에마르로路 10). 당시 앙투안 베사크는 스테인드글라스 예술가이자 장인이었다. 부창동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서신중에서 앙투안 베사크가 생제 신부에게 보낸 것은 1960.6.13.일부터 1962.1.3.일까지 모두 10통이며, 생제 신부가 앙투안 베사크에게 보낸 편지는 여러 차례로 확인되나 자세한 횟수는 알 수 없으며, 사본은 1960.9.10.일 자 1통이 남아있다.
- 277** 강북장에는 “한국 논산 신축성당 축성식에 즈음하여 교황성하는 본당 생제 신부와 본당 교우들에게 참된 신앙생활과 신심생활에 풍성한 교황 강복을 보내노라. 치고니아니 추기경” 라는 글이 쓰여있다. 한국어 번역은 생제 신부가 친필로 기록하여 서면자료에 남아있다.
- 278** 내포교회사연구소 편, 『논산 부창동 루르드의 성모성당 향토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최종 보고서)』, 천주교 대전교구 논산 부창동성당, 2020, 70~71쪽.
- 279** 1960년 6월 13일 자 앙투안 베사크의 서신.
- 280** 1961년 1월 24일 자 서신에 스테인드글라스 설치도면 외에 설명서, 유의사항, 청구서가

첨부되어 있다.

- 281** 신문기사는, ‘젊은 사제이자 예술가인 프롱 신부는 파리 교회 아카데미에서 입상하고, 1860년 풍댕의 뒤드 사부아 성에서 스테인드글라스 아틀리에를 설립했다. 그는 젊은 인물화 화가 앙투안 베사크와 연합했고 그의 재능과 자신의 작품을 접목시켰다.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불행하게도 1870년 전쟁으로 인하여 프롱 신부는 이 활동에서 손을 떼었다. 앙투안 베사크, 장남 브누아 베사크를 이어 장 오귀스트 베사크(1882)가 운영권과 관리를 맡게 되었다. 1892년 이 ‘메종’은 풍댕을 떠나 그르노블의 케 데잘프 9번지로 자리를 옮겼고, 이제르와 에밀-귀에마르로 두 길의 교차지점에 큰 건물을 지어 입주하면서 아틀리에의 현주소가 되었다. 손자 앙투안 베사크 씨가 두 아들의 보조를 받으며 현재 이 아틀리에를 경영하며 세계 모든 나라와 교류하고 있으며, 종교예술 전문가들인 베사크 가문의 전 세계의 성소에 빛을 입히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베사크 가문의 역사는 그르노블의 영광이며 또한 프랑스의 자랑이기도 하며 메종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축하 편지를 받았다. 세계 100곳이 넘는 교회를 ‘빛의 양탄자’로 장식하다.’라는 기사로 가문의 역사와 남품 실적을 보도하고 있다.
- 282** 논산 부창동성당 연혁에는 2월 26일로 표기되어 있다.
- 283**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53쪽
- 284**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61쪽
- 285** 『경향잡지』 1124(1961년 11월호), 626쪽
- 286** 김종서(요셉)의 증언은 2021년 1월 20일 오후 4시경 전화인터뷰로 이루어졌다. 당시 부창동성당 소속 신학생 이었던 조카 김용태(베네딕토, 1971년 7월 5일 사제서품, 전주교구 원로사목자)가 타입캡슐을 건물의 전면의 좌측 모서리부분 기초부위에 묻는 장면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287** 건물의 전후 박공벽 상부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안쪽 신자석 부분의 상부 트러스는 목골합성구조로 되어 있다. 2010년 실내마감재 교체를 위한 대수리때 건축전문가가 확인하였다.
- 288** 도면상의 수치와 실측에 따른 수치가 동일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도면의 수치는 척 단위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건축가가 원설계 작성시 피트 단위를 사용하였으리라 짐작하지만, 시공현장과 각종 공문서에서는 피트와 길이가 비슷한 척 단위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289** 건물의 높이와 면적은 건축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사항을 참고로 기록하였다.
- 290** • 설계, 감리: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무이(박재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4-8

• 시공:경성건설(정경제), 논산군 논산읍 반월동 114번지(사업자 308-03-9110099). 착공 신고서에는 시공자가 서울소재 신강건설주식회사(홍기영)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시공은 경성건설에서 시행하였다.

- 291 각 층별 면적은 각 자료마다 상이하여 도표로 정리해 보았다. 공부상 자료의 면적을 참고할 수 있겠다.
- 292 건축 202,434,278원, 기계설비 19,961,481원, 전기설비 8,361,352원, 잡비(10%) 22,242,889원으로 총 공사비는 253,000,000원이다. 평당 91만 원이 소요되었다.
- 293 1층은 현관 및 현관홀, 휴게실, 본당사무실, 소회의실1, 다목적홀, 주방을 배치하고 좌측으로 돌출된 평면에는 수녀원을 배치하고, 2층은 사제관과 교리실을 배치하였다. 사제관은 주임신부와 보좌신부 그리고 대건중고등학교를 담당하는 교목신부 공간을 마련하였다.
- 294 「마리아홀 건축 재정현황」(2004.7~2005.10.31.), 부창동성당 사무실 본관 서류 참조.
- 295 착공신고서에 따른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허가신고일은 2005년 4월 4일, 착공예정일은 5월 3일로 되어있다. 그리고 소요 공사비로 공사 도급금액은 5억원, 설계금액은 43,200,00원, 도급계약일자는 2005년 4월 23일로 각각 기재되어있다.
- 296 『경향잡지』 1055(1956년 2월호), 75쪽.
- 297 12월 28일에 봉헌했다는 기록도 있다.
- 298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46~48쪽.
- 299 김종서(요셉) 전 사목회장의 증언, 2021년 1월 20일 오후 4시경 전화 인터뷰를 통해 증언을 청취하여 기록·정리하였다.
- 300 『성재덕 신부: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자』 제2집, 45쪽.
- 301 맹세영(세례자요한) 신부 증언:하부내포 성지담당 사제, 2021년 2월 6일 오후 2시 35분~45분
- 302 김정환, 「교우촌 선교의 현대적 의미」, 『교우촌의 믿음살이와 그 지도자들:4차 심포지엄』,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2018, 121~141쪽; 『천주교 대전교구 공소 현황 조사연구』, 86~87쪽.
- 303 『천주교 대전교구 공소 현황 조사연구』, 88~89쪽.
- 304 현재 논산시 연산면 입리.
- 305 논산부창동천주교회(주임신부 유재식)에서 1986년 3월 11일 자 관리국으로 발송한 공문서의 기록을 참조
- 306 『한국 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1282쪽, 1302~1305쪽; 부창동성당 홈페이지.

- 307 이철성, 박범 편, 『옛 지도에서 論山을 만나다』, 논산시, 충남지역문화연구소, 2015, 7쪽.
- 308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상)』, 179쪽.
- 309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플랫폼, 카카오맵
- 310 논산 부창동본당 「교세통계」 및 「교세현황보고서」
- 311 43~44쪽, 62쪽, 73쪽에 수록되어 있다.
- 312 글씨가 퇴색되어 직책이 보이지 않는다.
- 313 목차에는 ‘논산천주교 학생회가’로 적혀있다.
- 314 「백석 강당 약사」는 논산본당 설정 80주년을 맞으며 2001년에 하영호 시몬이 작성한 수기이다. 20세기 후반에 주로 사용하던 ‘편지지’에 기록되었으며 총 68쪽 분량이다. 원본은 내포교회사연구소에 소장하고 있다. 원문에는 각주가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첨부하였다.
- 315 저자 하영호는 1951년에 백석공소가 설립되었다고 보고 이 글을 작성하였다. 그는 자신이 사포리로 이사한 해를 기준으로 삼은 듯하다. 그러나 그가 세례 받은 연도와 교세통계표를 보건대 백석공소의 설립연도는 1954년으로 봐야 한다.
- 316 백석공소에 관해서는 김정환, 「교우촌 선교의 현대적 의미」, 『교우촌의 믿음살이와 그 지도자들:4차 심포지엄』,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2018, 127~132쪽에 부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317 하영호는 1938년생이다(논산 부창동본당 「세례성사 증명서」). 군우리에서 어머니가 먼저 성당에 나갔으나 영세는 받지 못하고 논산으로 이사하였다. 그녀가 성당을 나간 계기는, 아이가 태어나면 자꾸 죽어서 괴로워하던 차에 누군가 천주교를 믿어보라고 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천주교 대전교구 홍보국, 「‘성수 공소’로 이름났던 백석 공소」, 『뚝방』 54, 천주교 대전교구, 1989, 14쪽).
- 318 성가소비녀회에서 ‘요셉’이라는 수도명으로 활동하다가 퇴회하였다. 논산에 거주하며 여생을 동정녀로 살며 선교에 전념했다고 한다(2018년 11월 10일 성가소비녀회 양업 토마스 수녀 증언). ‘구두라’는 ‘구돌라’ 성녀를 말한다.
- 319 동토플이라고도 한다. “동토는 흙을 잘못 건드려 지신을 노하게 하여 받은 불가사의한 현상 또는 그에 대한 처벌을 일컫는다. 이는 ‘동티 · 동법 · 동정’ 등으로도 불린다. 이사 날 썩은 손 있는 날로 잡았다든지, 집안의 나무를 베었다든지, 집을 고쳤다든지, 하는 일로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실행한다.”, 디지털군산문화대전(<http://gunsan.grandculture.net>)
- 320 별도의 강당이 없는 공소에서 신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정한 가정집. 일반적으로 공소 회장의 집이나 큰 방이 있는 집을 정하였다.

- 321 현재 백석공소에 부인이 살고 있다(2018년 11월 기준).
- 322 공소 강당이 건립된 해는 1965년이였다(『천주교 대전교구 공소 현황 조사연구』, 86~87쪽).
- 323 오기된 것으로 보인다.
- 324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다.
- 325 손만재 신부의 오기로 보인다.
- 326 유영소 신부의 오기로 보인다.
- 327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대전교구 홍보국 편, 『(대전교구사 자료집 제5집)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1883-1989 교세통계표』, 천주교 대전교구, 1990; 부창동성당 『교세통계표』, 『본당현황』.
- 328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689~720쪽.
- 329 1921년 4월 21일 총독부에서 조선연초전매령朝鮮煙草專賣令을 제정하였다.
- 330 이 서한은 서울교구 드브레 주교가 교구 산하 각 본당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낸 설문지이다.
- 331 이 설문지 또한 서울교구에서 각 본당에 발송한 것이다.
- 332 파르트네Parthenay, Théophile(1891~1969, 한국명:박덕로), 파리의방전교회 소속 선교사. 1920년 7월 3일 사제 서품을 받고 그해 8월 21일 한국에 도착하였다.
- 333 대구교구를 말한다.
- 33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서울교구연보』(Ⅱ), 명동천주교회 1987;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서울교구연보』(Ⅰ), 명동천주교회 1984.
- 335 천주교 대전교구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대전교구에서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의 문서-』, 대전교구사연구소, 2008.
- 336 보드뱅 신부가 홍콩에 있는 뵐탕 편집부의 레만Lehmann 신부에게 보낸 연대기이다.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내용상 1950년 5월 10-15일 사이에 작성된 듯하다. 첫 번째 장은 분실되었다.
- 337 생제 신부의 기록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성제덕 신부 서한집』, 134쪽).
- 338 패트릭 모나한Patrick Monaghan(1907-1951) 신부: 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
- 339 몇몇 교우들이 베르몽 신부를 지게로 지어 날랐다.
- 340 1955년 당시 이 급식소는 대전교구 내에서는 유일한 곳이었다. 급식을 중단할 경우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였다고 한다(서울성가소비녀회 역사자료실 편, 『서울성가소비녀회 50주년사 기념자료집 제1집』서울성가소비녀회 창설자 성제덕 신부』, 서울성가소비녀회, 1993, 403쪽).

편집자의 변

본서의 편찬은 2015년 논산 부창동 본당이 본 연구소에 집필을 의뢰하면서 시작되었다. 본당사 편찬위원회와 우리 연구소가 공동으로 자료 수집 및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물론 본당에서는 그 보다 훨씬 먼저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한 지도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2017년 본당에는 광명호 신부가 부임하였고, 연구소장도 2019년 사제 정기 인사를 통해 교체되었다. 100주년이 가까워지면서 본당에서는 편찬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고, 연구소는 그에 발맞추어 본당과 개인의 소장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100년사의 편찬을 일단락 지을 수 있었다. 수집한 자료의 편집과 집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발간·편찬사와 축사는 기고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가감 없이 실었다. 제1부 본당의 역사는 제1편~제3편 제Ⅱ장 교계 설정 전후기까지는 김정환 신부가 서술하고 편집 단계에서 일부 수정을 가하였다. 제Ⅲ장부터 제Ⅳ장 마지막까지는 김성태 신부가 서술하였으며, 제2부 본당의 건축은 본당 소장 자료와 정호기 선생이 정리한 자료와 김문수 신부가 기술한 원고를 편집 방향에 맞게 수정하여 수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자료들 가운데 라틴어와 붙어 문서는 각각 이상규 신부와 유소연씨가 번역해주었다. 제3부 본당 현황과 제4부 제1~3편은 본당사 편찬위원회가 정리·편집하였다. 제4부 본당의 자료 제4·5편과 부록의 관련 기록물은 박해기 순교자들의 행적으로부터 본당이 걸어온 신앙 여정을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본당에서 발행한 간행물과 박물관에서는 근현대 교회사의 선구자적 일면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그 가치가 규명되기를 희망한다. 편찬위원회의

‘극성’(지극정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소는 그 ‘극성’에 밀려 게으름 여지가 없었다.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서술하는 일은 물론 재차 살펴서 교정하는 꼼꼼함까지 위원회의 ‘극성’에 존경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디자이너는 귀찮고 힘겨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도 없이 숨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우리의 노고가 오로지 하느님께 바쳐지는 기도로 승화되고, 그 대신 한 줄의 서술과 한 장의 사진이 보는 이의 시선을 천주께로 돌리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보상이 없겠다.

내포교회사연구소장

김성태